

■ 특특뉴스

중기청 ‘가치삽시다 플랫폼’ 새출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가치삽시다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공적 플랫폼의 기능을 강화해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출발했다.

6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개편된 플랫폼은 기존 소상공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 기능 중심에서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공적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새로운 플랫폼에는 ▲디지털뉴스 ▲스튜디오 안내 및 예약 ▲온라인 진출 배움터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안내 ▲디지털 전환 솔루션 ▲가치삽시다 마켓 등 6대 기능을 추가해 소상공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신 동향 정보를 뉴스레터로 제공하고, 유용한 지식을 소개하는 영상 콘텐츠도 게시한다. /홍승현 기자

■ 그래픽 경제



국민고통지수 2015년 이후 최고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 정도를 측정하는 ‘국민고통지수’가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1분기 국민고통지수가 10.6을 기록, 2015년 1분기부터 분기별 지수를 산출해온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경제계 “지역발전 환영” 상인들 “생존권 위협”

복합쇼핑몰 지역민 반응

유통업계 유치경쟁 수면 위

일자리·관광활성화 기대감

전통시장과 상생 방안 숙제

현대백화점그룹이 광주지역 복합쇼핑몰 추진 의사를 밝히자 지역 내 경제계와 상인 등의 회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제단체와 시민들은 일자리 창출·관광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복합쇼핑몰이 들 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에 이 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대규모 미래형 문화 복합물 인 ‘더현대 광주(가칭)’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때부터 지역 이슈로 떠올랐던 광주복 합쇼핑몰 건립이 가시화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대백화점그룹이 쇼핑몰 유치 에 불을 붙이자 그간 물밑에서만 논의해왔던 신 세계·롯데백화점과 금호도 움직임을 보일 것 이 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유통업계의 경쟁은 치열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제계·시민과 시장 등 소상공인 들의 의견은 갈리는 양상이다.



광주 북구 임동 일신·전남방직 전경.

/전남매일 DB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그간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물밑에서 이뤄지던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통시장·소상공인과 상생 등 우려되는 부분들은 지자체 및 각 기관들과 잘 협의해 빠른 시일 안에 뚜렷한 성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직전 광주 시민 10명 중 7명이 복합쇼핑몰 건립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도 있는 만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지난 4월 전남매일과 뉴스1 광주·전남본부, 광주드림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광주 지역 만 18세 이상 주민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과 응답자의 68.2%가 복합 쇼핑몰 유치에 찬성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오 모씨(31)는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곳에서 쇼핑이나 여가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심리”라며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등 무수히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복합쇼핑몰 건립은 무조건 찬성”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형쇼핑몰 건립에 추진력이 불자 전통 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근심과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이들은 “상인 생존권을 위해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한다”며 “시장만의 특성을 살리고 활성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

다.

말바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장 인근에 1만 여 세대가 남게 입주할 예정으로 이에 맞춰 시장 자체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복합 쇼핑몰이 지어진다면 그러한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이고 매출하락으로 인해 상인들은 모두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담양 고서, 충효사 등 시골에서는 이곳을 찾는 노인들이 많고 옛날 전통방식의 재래시장을 원하는 상인·시민들도 있다”며 “복합쇼핑몰 건립으로 시장을 죽이기보다는 전문 마케팅 교육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광주은행, 금융위원회 기술금융 실적평가 1위

기술력 우수기업 자금지원 확대

“지역경제 위기 함께 극복 최선”

기술·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반기별로 시행하는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평가(TECH 평가) 결과 광주은행이 소형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순위는 광주은행이 기술력 높은 창

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신용평가(TCB)에 따른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아서다.

광주은행은 지역경제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곳에 적시에 발빠른 금융지원과 금융상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총 54억 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총 47억 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올해도 광주

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각각 10억 원, 광주시 동·서·북구청에 총 1억 5,000만 원을 별도 출연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5월 말 기준 광주은행이 코로나 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상대로 실시한 금융지원은 총 3만 481건 총 금액 1조 3,775억에 이른다.

실제 광주은행은 지난해 삼성전자 납품업체인 ㈜한영피엔에스에 우대금리로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고, 타이어스티커라벨을 생산하는 ㈜세롬에도 우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이자 비

용을 절감시켰다.

한편 광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2021년 관계형 금융 우수은행’ 중 소형그룹에서 1위에 올랐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은 금융상담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금융지원 및 경영컨설팅을 진행해 적기에 자금자원을 실시, 지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www.hinuri.co.kr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디벨로퍼 그룹 하이누리

HI-NURI 하이랜드(주) HI-NURI (주)누리산업개발 HI-NURI (주)나로디엠씨 HI-NURI (주)하이누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곳을 바로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길을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차별화된 접근과 전략으로 성공 분양으로 가는길,
부동산개발 | 분양마케팅 전문 그룹 하이누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회장 김 동 기

광주·전남 부동산학 박사1호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1대, 2대 호남지회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이사
한국 부동산 분양마케팅협회 호남지회장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 자문위원
분양상담사 법정교육 전임강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전임강사